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글. 송주호
방송과기술 편집장

방송사는 독과점의 지위를 가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존재로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에서 잘 나오면 종종 인기와 재물을 거머쥐기도 하니,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분명 대단하죠. 그런데 방송사가 늘어갈 때마다 이러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혼자도 방송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무색해 보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지나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 경쟁자가 너무 많으면 경쟁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을 의식하기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생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재가공과 유통, 부대사업이 일상화되면서, 혹은 그것이 오히려 목적이 되면서, 웬지 방송사를 방송사라고 말하기가 머쓱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공급자가 아닌 고객 중심 사고가 요구되어왔습니다. 시청자가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콘텐츠 제작과 사업에 핵심 고려 사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방송사가 시청률에 대해 더욱 민감해하고, SNS의 댓글을 분석해가며 고객의 진심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자 중심의 사고는 50년 전에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체코 출신의 음악사회학자인 티보르 크나이프(Tibor Knief: 1932-2016)는 1970년 즈음에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해 작품이 아닌, 감상자의 측면에서 음악을 연구하여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기존의 미학이 작품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작품의 의미를 특정하여 감상자에게 부담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감상한 것으로 오도했다는 것이죠. 크나이프는 감상자가 청취하고 이해하고 상상하는 음악은 작곡가와 연주자가 가진 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감상자가 가지는 판타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파했죠. 크나이프는 작곡과 연주라는 활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만들어지는 음악을 ‘구상적 음악’, 감상자가 청취와 상상이라는 활동을 통해 수용되는 음악을 ‘상상적 음악’이라고 명명하여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적 음악’을 연구하는 분야를 ‘제2의 미학’이라고 불렀죠.

크나이프는 감상자가 청취한 음악을 임의로 형식화함으로써 상상적 음악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의 구조가 대중에게 익숙한 구조라면 감상자가 형식화하기가 수월하지만, 음악이 복잡할수록 대부분은 형식화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경험으로 형성된 인습과 편견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감상자들은 그 음악을 ‘난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곡가와 연주자는 감상자에게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감상자의 구조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잘 감상하기 위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 인습과 편견의 크기를 키우든지, 아니면 상상하는 능력을 키워서 인습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감상자에게 감상을 위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감상자에 관한 연구는 방송사의 시청자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해야 하는 방송사라면, 대다수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인습과 편견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방송콘텐츠를 시청하면서 형식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방송콘텐츠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에 미래가 있을까요? 아마도 시청자들은 오래가지 않아 진부함을 느낄 것입니다. 흥미를 느끼게 하는 충분한 자극이 없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작가적인 상상을 통해 감상자의 상상을 유도한다면, 방송사는 대중을 선도하고 문화를 이끄는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과기술 편집부



방송과기술 편집장
송주호



OBS 김영광



아리랑국제방송 안재선



SBS 강동민



TBS 이봉근



MBC 박두경



EBS 이용학



KBS 조원현



BBS 박진용



YTN 이한배



KT스카이라이프 김희동



CBS 김준규



기자 이진범

방송과기술

BROADCASTING & TECHNOLOGY
Vol.297 2020. 9

발행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Tel. 02-3219-5635~42 / Fax. 02-2647-6813

www.kobeta.com / E-mail. kobeta@naver.com

발행인 변철호 **편집인** 기정모 진신우 김종기
김정용 신동훈 한성주 최총환 손근선 심영우
김은식 박치규 김효신 객재호 천대성 장해완
안의섭 강태구 김동현 김창원 김경태 박진수
고종국 김성찬 황인규 박태형 **편집장** 송주호
편집위원 조원현 박두경 강동민 이용학 김준규
박진용 이봉근 안재선 김희동 이한배 김영광
편집·취재기자 이진범 **편집디자인·인쇄** P3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9 유삼빌딩 3층

Tel.02-3141-2760 / Fax.02-3141-5569

회원사 KBS MBC SBS EBS CBS
YTN kt skylife arirang BBS
KFORCE MEDIA TBS OBS X TBN MBN TBC
CJB KNN kbc G1 JIBS TTB JTBC
WBC NATV WDS MBN

구독 신청

- 방송과기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한 후 전화 혹은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 과월호 구입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6개월 5만원 / 1년간 9만원 / 2년간 17만원
- 계좌: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 (예금주)
- Tel.3219-5635 / Fax.2647-6813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안내문 발송
- 과월호 방송과기술 PDF 열람 가능
- KOBA(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무료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KOBA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 등록 시 할인 적용
(구독 권수에 한정)
- 기타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원고 기고 및 광고 문의

- Tel.02-3219-5642 (사무국)
- E-mail. jnb1001@nate.com

월간 방송과기술 홈페이지

tech.kobeta.com

